

# 이재명 '민주 텃밭' 광주로...호남 민심 봉합 나선다

### 오늘 5·18국립묘지 참배 대선후보 첫 행보...이낙연 동행 불발 25일께 경가지사직 사퇴...민주당 내달 1일 선대위 공식 출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국정감사를 마치고 22일 오전 광주 5·18 국립묘지를 찾는다. 이 지사는 이날 오후에는 (故) 노무현 전 대통령 묘소가 있는 김해 봉하마을을 방문한다. 경기지사직 사퇴는 오는 25일께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1일 이재명 경기지사 측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이 지사는 22일 오전 광주·전남·전북 국회의원들과 함께 광주 5·18 국립묘지를 찾는다.

지난 18일과 20일 두 차례에 걸쳐 국회 국정감사장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 지사는 야당의 파상 공세를 잘 막아내고 대장동 특혜 개발 의혹 논란에서 어느 정도 벗어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지사는 당초 지난 11일 민주당 대선 후보로서 대선 현충원을 방문한 뒤, 광주를 찾을 계획이었으나 국정감사 증인 출석이 급작스럽게 결정되면서 일정이 미뤄졌다. 이 지사는 국정감사를 통해 대장동 특혜 개발 의혹의 중심에서 벗어났다는 자체 판단을 내리고 사실상 진보진영의 심장인 광주에서 이를 공식화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이 지사가 이날 광주를 방문해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 것인지도 주목된다. 전남 출신의 이낙연 전 대표가 이 지사와의 경쟁에서 패배함에 따라 호남 민심의 결집에 균열이 생긴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번 대선이 박빙이 예상된다. 점에서 호남 민심 결집은 정권재창출에 최소한의 필요 조건으로 꼽힌다. 이날 5·18 국립묘지 방문에는 호남지역 국회의원들도 대부분 함께 하는데 이는 사실상 민주당 대선 후보로서의 공식 행보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여기에는 이 지사가 민주당 경선

에서 후보로 확정되고도 결선투표 논란으로 '컨벤션 효과'를 제대로 누리지 못했다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관측된다. 또 야권의 유력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전두환 발언'에 대해 호남 민심이 크게 분노하고 있다는 점도 광주 방문을 재촉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관심을 모았던 이낙연 전 대표와의 '광주 동행'은 이뤄지지 않아 아쉬움을 남기고 있다. 이 지사가 이 전 대표와 함께 5·18 국립묘지를 찾았다면 경선 과정에서 나타났던 양극도 해소되면서 호남 민심 결집은 물론 민주당이 원팀으로 대선에 나서는 효과가 기대됐기 때문이다. 이 지사 측 관계자는 "이 전 대표와는 어제 전화로 통해 정권 재창출을 위해 서로 협의하기로 하는 등 원만하게 소통하고 있다"며 "선대위가 공식 출범하기 이전에 이 지사와 이 전 대표가 함께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경기지사직 사퇴는 25일 예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감이 끝났다고 경기지사직을 바로 사퇴하는 것은 모양이 좋지 않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까지 도정을 쟁기고 대선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이를 반영하듯, 이 지사는 지난 20일 국감을 마친 뒤 최재진에게 "공직이라는 것이 자기가 참부러 버리고 또 참부러 던질 수 있는 가벼운 것이 아니다"면서 "마지막 순간까지 신중하게 생각하고 도정에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금도 (사퇴 일정을) 심사숙고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당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사퇴하고 후보로서의 공식 일정을 시작하면 좋겠다는 입장"이라면서 "저도 우리 도민들께 설명해드릴 시간이 필요하고 그동안 말린 업무도 많아 어느 정도 시간이



김영·정점식 의원 정계안 제출 더불어민주당 고발사주 국기문란 진상규명 TF 단장인 박주민 의원과 부단장인 민병덕 의원이 2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정계안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이 지사 측은 경기지사직 사퇴와 함께 곧바로 대선 예비후보 등록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현직 도지사인 이 후보가 후보자 등록을 하려면 오는 12월 9일까지는 직을 내려야 한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다음달 1일 선대위를 공식 출범시킬 전망이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 선출이 다음 달 5일이라는 점에서 원팀 선대위를 먼저 출범시켜 여론의 주목을

받는다는 것이다. 이 지사와 이 전 대표의 회동 및 문재인 대통령과의 면담 등도 다음 주 중에 이뤄지지 않느냐는 전망이 나온다. 한편, 당 선대위 구성과 관련, 이낙연 전 대표와 캠프 인사들의 참여 여부와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들이 주요 보직에 진출하느냐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 민주당은 이번 주 내에 선대위 고위직 구성을 마무리 짓고 다음 주에는 최종 결과를 도출한다는

계획이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이제 민주당의 정권재창출을 위해 이재명 후보가 총력을 다하고 이낙연 전 대표가 이를 뒤에서 밀어주는 모습이 필요하다"며 "민주당이 진정으로 원팀이 되지 못한다면 호남 민심의 결집도, 정권재창출도 물 건너 갈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 '대장동 정면 돌파' 이재명 지지율 정체 풀릴까

#### 상승세 동력 확보... "지사직 사퇴 등이 더 확실한 모멘텀" 시각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대장동 국감'으로 불린 이번 경기도 국감을 무난하게 치렀다는 평가를 받으면서 이 후보의 정세면 지지율 변화에도 이득이 집중되고 있다.

이 후보는 지난 10일 민주당 대선 경선에서 승리하고 당의 대선 후보로 지명됐지만, 이후 이른바 '컨벤션 효과'를 누리지 못하고 지지율이 되레 약세를 보이면서 '역(逆)벤션'이라는 말도 나왔다.

대개 대형 정치 이벤트 직후에는 지지율이 올라가 가마리인데 이 후보가 정국 최대 이슈인 '대장동 의혹'에 갇힌 것 아니냐는 분석이다.

이에 야권이 전폭적으로 나온 이번 국감에 이 후보가 경기도지사 자격으로 참석하기로 하자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굳이 나갈 필요 없는 국감에 나가 소모적 정쟁에 휘말리는 게 아니냐는 전망이었다.

그러나 국감을 치른 이후 당 내부에서는 결과적으로 '성공적인 한 수'였다는 호평 일색이다. 이 후보의 정면 돌파 선택이 옳았다는 분위기가.

막상 무명을 열어보니 '결정적 한 방'은 나오지 않았고 국민의힘 김용관 의원의 '가짜 돈다발 사건' 등 야당이 헛발질을 하면서 오히려 역습의 계기를 마련했다는 자평이다.

이 후보 측 핵심 관계자는 이번 국감으로 이 후보가 상승세를 탈지에 대해 "분명히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부담을 덜고 후보로서 행보를 할 수 있는 근거는 충분히 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후보가 이번 국감을 계기로 '대장동 리스크'를 완전히 털어내고 상승 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 후보는 이번 국감에서 검증의 고비마다 자신

과 관련이 없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면서 야권으로 공을 넘기는 전략을 썼다.

그는 이번 국감의 최대 쟁점인 대장동 개발 사업의 초과이익 환수 규정에 대해 보고·삭제 지지 등을 부인하면서 "국민의힘이 방해하지 않았으면 9000억원대라고 하는 개발이익을 성당사가 다 취했었을 것"이라고 맞받아쳤다.

그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녹취록에 등장하는 '그분'에 대해서 "국민의힘 또는 부패 정치 세력"이라고 반박했고, 구속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임명 책임에 대해서 "측근이 아니고 임명도 안 했다"는 주장을 내세웠다.

윤태곤 더모아 정치분석실장은 "국감에서 보인 '기억하지 않는다' 등 답변 태도가 지지율에 미칠 효과는 확실하지 않다"며 "오히려 앞으로 도지사직 사퇴나 선대위 구성 등 이벤트가 더 확실한 모멘텀 확보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연합뉴스

## 이 35% vs 윤 34%

## 이 35% vs 홍 32%

### 대권 주자 4자 가상대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4자 가상 대결에서 오차범위 내에서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윤석열, 홍준표 후보 등에 각각 앞선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1일 나왔다.

이번 조사는 이 후보가 경기지사 자격으로 지난 18일 국회 행안위, 20일 국토위 국정감사에 출석한 기간 중 이루어졌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18~20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3명을 대상으로 '4자 가상 대결'을 조사한 결과, 이재명 후보는 국민의힘 후보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인 경우 35%를 기록하며 윤 전 총장(34%)을 오차범위 내 앞섰다.

해당 가상대결에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7%,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는 6%를 받았다.

국민의힘 후보를 홍준표 의원으로 설정한 4자 가상 대결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35%, 홍 의원은 32%를 각각 기록했다. 안철수 대표는 8%, 심상정 후보는 6%였다.

한편 국민의힘 대선후보 적합도 조사에서는 윤석열 전 총장이 25%를 받으며 홍준표 의원(22%)을 앞섰다. 유승민 전 의원(12%), 원희룡 전 지사(6%) 순으로 뒤를 이었다.

차기 대통령 선거에 대한 인식 조사에서는 '국정운영에 대한 심판을 위해 야당 후보에게 투표해야 한다'는 응답이 51%로 과반을 넘었다. 이는 직전 조사(9월 5주차)보다 4%포인트 늘어난 수치다.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위해 여당 후보에게 투표해야 한다'는 응답은 직전 조사보다 1%포인트 줄어 40%에 그쳤다.

이번 4개 기관 합동 전국지표조사(NBS)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연합뉴스

사랑과 감사의 67년  
1954~2021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 2022학년도 광신대학교 신입생 모집

**Passion  
Vision  
Truth**

열정  
꿈  
진리로 승미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수시모집 원서접수는  
**2021. 9. 10(금) ~ 14(화)**

인터넷접수  
유웨이 어플라이  
**www.uwayapply.com**

입학문의 062)605-1114

**학 부**

■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모집인원은 변동될 수 있음.

계 열	모 집 단 위		모 집 인 원	
	학 과	수 시	정 시	
인 문 사 회	신 학 과	30	15	
	한국어교육학과	2	2	
사 범	복지상담융합학부 (사회복지학 전공 / 코칭명령교육상담학 전공)	31	3	
	유아교육과	7	3	
예 능	음악학부	23	6	
	(음악학 전공 / 실용음악학 전공)			
<b>총 계</b>		<b>93</b>	<b>29</b>	

■ 학부 전형일정

수시모집  
· 원서접수: 2021. 9. 10(금) ~ 14(화)      · 전 형 일: 2021. 10. 1(금)

정시모집  
· 원서접수: 2021. 12. 30(목) ~ 2022. 1. 3(월)      · 전 형 일: 2022. 1. 10(월)

믿음이 있는 대학 · 믿음 주는 대학

**광신대학교**  
KWANGSHIN UNIVERSITY

61027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역지소로 36